

### **Studio/ Seminar Research Project:**

Vietnam War + Grandfathers story of his participation in the war + PTSD = his relationship with the rest of the family

Vietnam War:

What is it:

- Duration: 1954-75
-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Vietnam
- North= communist government Vietnam known as the Viet Cong
- South was allies with the United States (Democrats)
- North communist government mentality: "War against the Americans to Save the Nation"
- Named Asia's Cold War.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ere enemies and allies to North and South)
- Unfinished conflict
- The main reason for such a conflict was because North Vietnam had defeated its French colonial administration of Vietnam in 1954, and wanted to unify the entire country under a single regime modeled after the Soviet Union and China (Communists)
- South Vietnam wanted to preserve ally with the U.S. The United States had active military advisors, and combat units in 1965. In 1969 more than 500,000 U.S military personnel were stationed in Vietnam.
- The North was supplied with armory and weapons by Soviet Union and China.
- The cost and casualty of the war was too overwhelming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refore had to withdraw in 1973. South Vietnam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like South Korea had fell to communist invasion.
- Around 2 million civilians have died and 1.1 million North Vietnamese and Viet Cong (South) fighters
- The Us military estimated around 200,000 to 250,000 soldiers have died.
- Other countries who fought for South Vietnam have also suffered casualties.
- South Korea suffered more than 4000 dead.

Grandfathers Participation in the War:

- Got shot in the legs

PTSD:

- Grandfather has hearing problems and therefore he had to stop driving and working.
- Grandmother was worried sick
- Grandfather tried to go back to the workforce but decided to get paid for his service and his past job retirement money in increments.

## Interview questions

### Interview Questions

#### Grandfather

##### Part 1

1. How old were you when you joined the army?
2. What was your life like before the war?
3. Describe your daily routine before the war

##### Part 2

4. What was your position in the army?
5. What was South Korea like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6. What was the general response of the South Korean people during the start of the Vietnam War?
7. Was it more positive or negative? Why do you think so?

##### Part 3

8. Did you have a moment during the war when you felt like there was no hope?
9. Describe your daily routine during the war
10. What was the one important lesson you learned or skill you gained?
11. After the war, what changed for you? Did anything change?
12. Looking back, how do you feel about the war?

#### Questions for my father

##### Part 1.

1. How would you describe your relationship with your father?
2. What is one significant event you remember from your childhood?
3. If you were to describe grandpa how would you describe him?
4. Was your relationship with grandpa always good?
5. Were there times where you felt the war affected your own father?
6. How did your relationship with your father change after the Vietnam War, if you remember?
7. Do you think PTSD affected the way your father acted or treated you?
8. Did his military occupation influence you and your lifestyle? How so?
9. Growing up, were there any hardships between you and your father? If so, how did you solve them?
10. As a South Korean man who has to participate in the military what was your firsthand experience in the military like?
11. Can you imagine being in a war in real life?

## Possible Plot

When I was younger, I always feared my grandfather. He was very tall and big for a South Korean man.

My grandfather was around 5'11". My grandfather's long legs and broad shoulders were intimidating to me as a baby. My grandfather did not finish University and instead joined the military.

- Introductory Questions?

My grandmother always said my grandfather was a cheerful and playful man despite his height and body.

He was nicknamed "teddy bear" by his friends. However, my grandfather still scared me. She also told me that my grandfather was a very playful and caring man and that he was not a very stoic and serious person until after the war. My dad's relationship with my grandfather was also pretty good. (insert video of father talking about dad)

My grandfather came back from the war with a lot of stories, my dad told me ones of where my grandfather got shot in the legs twice and almost lost his right limb. I tried asking about the shot but he refused to recall the memory. (insert the audio clip of him unwilling to answer)

## Interview Questions Translated

### Interview Questions

-Part 1 -> 아래 3 가지 질문은 할아버지가 군대에 가기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How old were you when you joined the army?  
→ 할아버지는 몇살에 군입대를 하셨나요?
2. What was your life like before the war?  
→ 월남전 참가전에는 무슨일을 하셨나요
3. Describe your daily routine before the war  
→ 월남전 참전전에 매일 하셨던 일은 무엇이였나요?

Part 2 -> 아래 4 가지 질문은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군생활하실때와 한국이 월남전 참가전의 한국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4. What was your position in the army?  
→ 군에서 담당했던 일은 무엇이고 계급이 무엇이였나요?
5. What was South Korea like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 한국전쟁(1950~53) 끝무렵에는 한국이 어땠나요?
6. What was the general response of the South Korean people during the start of the Vietnam War?  
→ 한국이 월남전에 참전하려고 했을 때 한국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7. Was it more positive or negative? Why do you think so?  
→ 그 반응은 찬성이었나요 아니면 반대였나요?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Part 3 -> 아래 5 가지 질문은 할아버지가 월남에서 겪었던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8. Did you have a moment during the war when you felt like there was no hope?  
→ 군인으로서는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상태까지 간적이 있었는지 그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9. Describe your daily routine during the war  
→ 월남에서 할아버지의 매일 했던 일은 어떤일이었나요?
10. What was the one important lesson you learned or skill you gained?  
→ 월남전에 참가를 했을 때 얻었던 교훈이나 느낌은 무엇인가요?
11. After the war, what changed for you? Did anything change?  
→ 월남전에서 돌아온후 할아버지에게 변화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12. Looking back, how do you feel about the war?  
→ 과거를 돌아해보면 전쟁에 대한 할아버지의 생각은 어떤가요?

## Answers in Korean

1. 할아버지가 몇살에 군대에 입대를 하셨나요  
è 할아버지는 19살에 군대를 갔어
  2. 월남전 참전하시기전에는 무슨일을 하셨어요?  
è 응 최전방에서 보병부대에서 소총병으로 근무하면서 북한하고 마주보면서 DMZ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하는 일은 주로 작전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월남에 갔어  
| 최전방 : 북한하고 한국하고 나누어져 있는 경계선에 있는 지역 ( Front line )  
| 보병부대 : 육지(땅)에서 근무하는 일반부대 (Infantry Unit )  
| 소총병 : 군대에는 지휘하는 사람 , 큰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등이 있는데 소총병은 가장작은 무기 ( 총)를 들고 근무하는 병사  
| DMZ : Demilitarized Zone의 약자로 비무장지대라고 하는데 한국과 북한사이에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2km을 DMZ으로 만듦. 사실 이 안에는 군사적인 행동을 하면 안되는데 양쪽이 서로 감시를 위한 집(초소라고 해)을 만들어 놓고 서로 감시하고 있어  
| 작전분야 : 적의 움직임(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보고하고 북한군이 몇 명이 근처에 있는지 북한군의 부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등등을 파악하는 일  
( 즉 할아버지는 한국군과 북한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부대(보병부대)에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지는 DMZ이었고 하시는 일은 적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작전일을 하심
  3. 월남전 참전전에 매일 한국에서 하셨던 일은?  
è 월남 참전하기전에 정보작전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최전방부대에서 북한군들이 무슨일을 하는지 관측사항을 접수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하였습.  
| 정보작전상황실 : 적의 움직임과 부대의 움직임, 적의 무기의 이동등등 특이사항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짜는 부서 ( Department )  
| 관측 : 관찰하고 check하는것
  4. 군대에서 담당했던 일은 무엇이있었어요?  
è 정보수집해서 상관 및 상부에 보고(report)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당시의 계급은 중사였습  
| 상관 : 할아버지보다 높은 사람  
| 상부 : 할아버지가 근무하는 부서( Department )보다 더 높은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  
| 중사 : 군인은 크게 officer , petty officer , 일반병사로 나누어 지는데 할아버지는 petty officer중에 sergeant 였어 ( 중사 )
5. 전쟁때도 그일 이었나요?  
è 할아버지 대답이 똑 같네
6. 한국전쟁 끝무렵에 한국이 어땠나요?  
-> 한국전쟁이 끝난후에는 온 나라전체가 폐허가 되었어 그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과 우방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었지  
\* 폐허 : 완전히 파괴되어 다 부서지고 엉망인 상태  
\*우방국 : 도움을 주는 나라 , 당시 한국에 도움을 준 여러나라를 말해
7. 한국이 월남전에 참전하려고 했을 때 한국사람들의 반응?  
-> 한국인들은 그때 당시 월남이 장기전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한국인들은 두려워했어.무서워했어.한국전쟁때 우방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미국으로부터 월남에 파병 요청을 해서 파병을 하게 되었어  
\* 파병 ; 군대를 보내는 일  
( 수진아 할아버지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 이것은 파병하게 된 이유가 맞겠네 )  
è 그 당시 월남전 참전한다고 했을때 국민들이 50% , 50%였어 반(half)은 가도 좋다 반(half)은 가면 안된다.왜 그러냐며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싫어했지  
( 할아버지 대답이 좋지 않네.ㅋㅋ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남의 나라 전쟁에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서 죽는 것 때문이었지)

8. 군인으로서 월남전에 군인으로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상태까지 간적이 있나요

-> 그런 상황이 있었지. 하지만 군인은 명령에 따라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없이 개인적으로 하기 싫다 뭐 이런 것을 못해. 상부에서 전쟁하지 말고 가자 하면 몰라도 상부에서 지시없이 내 마음대로 못해

( 할아버지의 대답이 잘못되었는데 할아버지 말씀의 내용은 많은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꼈겠지만 군인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그런 두려움을 무시하고 전쟁에 참가를 했다는 의미임)

9. 월남에서 할아버지가 매일 했던 일은

-> 낮에는 정보작전상황실에서 작전상황을 접수하고 일주일에 세번정도 의무적으로 베트남군이 잘 다니는 곳에 매복을 했어. 매복이 뭐냐하면 저녁에 적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에 잠복근무를 했어( 숨어 있다가 전쟁하는거야) 그당시 베트남하고 한번 교전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전우가 1명이 죽고 베트남 2명이 사살되었지.

\* 정보작전상황실 : 각 부대 unit마다 적의 상황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department가 있었는데 거기를 말해. 군대의 key leader 역할을 한다고 보면되

\* 매복 : 적들이 안보이게 몰래 숨어있는 것을 말해. 나뭇가지 못을 입고 새까맣게 칠해서 못 알아보게 숨어있는 것. 잠복근무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 교전 : 서로 싸우는 것. 전투와 같은말

\* 사살 : 상대방 군인을 죽이는 것

10. 월남전에 참가를 했을 때 얻었던 교훈이나 느낌

-> 월남전쟁은 월남국민들이 안보의식이 부족해서 생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보교육을 철저히해서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후세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 안보의식 : 적으로부터 자기( 또는 자기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생각

\* 안보교육 : 적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지켜야하는지에 대한 교육

\* 후세 : 아들 딸 그리고 그손자 손녀등등 뒤에 살아갈 사람들

11. 월남전에서 돌아온후에 할아버지의 변화는

-> 할아버지와 함께 월남전에 참가하려고 배를 같이 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그 생각만 하면 슬프고 꿈에도 보이고 그래. 한참 그렇게 하다가(고통을 받다가) 나중에는 괜찮았지 그리고 월남은 나무가 많은 정글인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 제초제(고엽제)를 뿌리는데 사람 몸에 묻으면 피부가 피부병이 생기고 고열이 생기고 그래. 지금 할아버지는 피부에 좀 이상이 있거든 그리고 고혈압도 좀 있고. 그래서 고혈압환자로 판정을 받아서 국가에서 지금 치료를 해주고 있어 할아버지는 피부가 이상하고 고혈압이 있어 월남 갔다와서... 할아버지 얼굴 까만거 알지 월남에서 고엽제에 묻어서 그런거야

\*고열 : 열이 많은 것

12. 전쟁은 나라가 폐허가 되고 사람이 죽고 부모형제가 생이별을 하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수 있었으면 좋겠다

\* 생이별 : 살아있지만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찾을수도 없는 이별을 생이별이라고 해.

13. 제가 여기 없는 문제를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월남전에서 돌아오고 가족이나 생활속에 전쟁이 영향이 있었나요?

-> 조금 도움이 되었지. 전투수당을 주거든 그것을 할머니에게 보내주었지. 아들하고 딸들하고 잘 살라고.. 생활에 도움이 좀 되었지.

( 할아버지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 못하셨네. 지나가 알아서 만들어야 겠다

\*전투수당 : 군인을 원래 salary 말고 월남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매월 돈을 주었는데 그것을 참전수당이라고 해

14. 가족관계나 그런게 바뀌었나요?

-> 그대로야..

(이것도 질문을 정확히 안했고 할아버지도 이해를 못하셨네. 그래서 질문 o r 잘해야되는거야

1. 할아버지가 몇살에 군대에 입대를 하셨나요

How old were you when you went to the mandatory military?

è 할아버지는 19살에 군대를 갔어

è I participated in the war when I was 19 years old

2. 월남전 참전하시기전에는 무슨일을 하셨어요?

Before the Vietnam War, what was your job in the military?

è 응 최전방에서 보병부대에서 소총 병으로 근무하면서 북한하고 마주보면서

DMZ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하는 일은 주로 작전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월남에 갔어

Before the Vietnam War I was in the frontline infantry division as well as the strategic unit at the DMZ border. I was working near the DMZ until I volunteered for the Vietnam War.

l 최전방 : 북한하고 한국하고 나누어져 있는 경계선에 있는 지역 ( Front line )

l 보병부대 : 육지(땅)에서 근무하는 일반부대 (Infantry Unit )

l 소총병 : 군대에는 지휘하는 사람 , 큰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등이 있는데 소총병은 가장작은 무기 ( 총)를 들고 근무하는 병사

l DMZ : Demilitarized Zone의 약자로 비무장지대라고 하는데 한국과 북한사이에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2km을 DMZ으로 만듦. 사실 이 안에는 군사적인 행동을 하면 안되는데 양쪽이 서로 감시를 위한 집(초소라고 해)을 만들어 놓고 서로 감시하고 있어

l 작전분야 : 적의 움직임(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보고하고 북한군이 몇 명이 근처에 있는지 북한군의 부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등등을 파악하는 일

( 즉 할아버지는 한국군과 북한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부대(보병부대)에 근무를하였는데 근무지는 DMZ이었고 하시는 일은 적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작전일을 하심

3. 군대에서 담당했던 일은 무엇이였어요?

What was your job in the mandatory military?

è 정보수집해서 상관 및 상부에 보고(report)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당시의 계급은 중사였습

è In the military my job was to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North Korean army and their recent movements and strategies. I was doing the same job during the Vietnam War.

l 상관 : 할아버지보다 높은 사람

l 상부 : 할아버지가 근무하는 부서( Department )보다 더 높은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

l 중사 : 군인은 크게 officer , petty officer , 일반병사로 나누어 지는데 할아버지는 petty officer중에 sergeant 였어 ( 중사 )

6. 한국전쟁 끝무렵에 한국이 어땠나요?

After the Korean war, what was South Korea like?

-> 한국전쟁이 끝난후에는 온 나라전체가 폐허가 되었어 그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과 우방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었지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South Korea was a disaster. South Korea had to rely on foreign aid to survive.

\* 폐허 : 완전히 파괴되어 다 부서지고 엉망인 상태

\*우방국 : 도움을 주는 나라 , 당시 한국에 도움을 준 여러나라를 말해

9. 월남에서 할아버지가 매일 했던 일은

What was your everyday life as a soldier in the Vietnam War like?

-> 낮에는 정보작전상황실에서 작전상황을 접수하고 일주일에 세번정도 의무적으로 베트남군이 잘 다니는 곳에 매복을 했어.매복이 뭐냐하면 저녁에 적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에 잠복근무를 했어( 숨어 있다가 전쟁하는거야) 그당시 베트남하고 한번 교전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전우가 1명이 죽고 베트남 2명이 사살되었지.

During the day, I was in the information operation department trying to see the Viet Cong's movements. During the night, my troops and I would prepare for village ambushes. In a week, we ambushed around three Viet Cong army bases and villages. During one of the deadliest combats, one of my best friends in the division died.

\* 정보작전상황실 : 각 부대 unit마다 적의 상황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department가 있었는데 거기를 말해. 군대의 key leader 역할을 한다고 보면되

\* 매복 : 적들이 안보이게 몰래 숨어있는 것을 말해. 나뭇가지 못을 입고 새까맣게 칠해서 못 알아보게 숨어 있는 것. 잠복근무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 교전 : 서로 싸우는 것. 전투와 같은말

\* 사살 : 상대방 군인을 죽이는 것

8. 군인으로서 월남전에 군인으로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상태까지 간적이 있나요

During the War Vietnam was there a point where you wanted to go home and quit fighting?

-> 그런 상황이 있었지.하지만 군인은 명령에 따라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없이는 개인적으로 하기싫다 뭐 이런 것을 못해. 상부에서 전쟁하지 말고 가자 하면 몰라도 상부에서 지시없이 내 마음대로 못해

There were many times where I wanted to quit. But because of the honor code and my friends in the same division I can't just abandon them. Each unit is essentially a team.

( 할아버지의 대답이 잘못되었는데 할아버지 말씀의 내용은 많은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꼈겠지만 군인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그런 두려움을 무시하고 전쟁에 참가를 했다는 의미임)

10. 월남전에 참가를 했을 때 얻었던 교훈이나 느낌

While fighting in the Vietnam War what life lessons have you learned?

-> 월남전쟁은 월남국민들이 안보의식이 부족해서 생긴거야.그래서 우리나라는 안보교육을 철저히해서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후세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lesson I learned was never lose hope, and always fight for your country. I also think that South Korea should be more wary and teach how to be a safer country for future generations.

\* 안보의식 : 적으로부터 자기( 또는 자기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생각

\* 안보교육 : 적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지켜야하는지에 대한 교육

\* 후세 : 아들 딸 그리고 그손자 손녀등등 뒤에 살아갈 사람들

11. 월남전에서 돌아온 후에 할아버지의 변화는

After coming back from the Vietnam War do you feel like you have changed?

-> 할아버지와 함께 월남전에 참가하려고 배를 같이 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그 생각만 하면 슬프고 꿈에도 보이고 그래. 한참 그렇게 하다가(고통을 받다가) 나중에는 괜찮았지

그리고 월남은 나무가 많은 정글인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 제초제(고엽제)를 뿌리는데 사람 몸에 묻으면 피부가 피부병이 생기고 고열이 생기고 그래. 지금 할아버지는 피부에 좀 이상이 있거든 그리고 고혈압도 좀 있고.그래서 고혈압환자로 판정을 받아서 국가에서 지금 치료를 해주고 있어



할아버지는 피부가 이상하고 고혈압이 있어 월남 갔다와서... 할아버지 얼굴 까만거 알지  
월남에서 고열제에 묻어서 그런거야

\*고열 : 열이 많은 것

When I participated In the Vietnam War I was on a boat with many of my friends and fellow soldiers. However, many of them died during the war. Whenever I think about my friends I get flashbacks of the combats and the deaths I feel depressed. For a while I felt depressed and I did not know what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was until your grandmother told me I was waking everyone up with my nightmares and I was sleep walking.

During the war

12. 전쟁은 나라가 폐허가 되고 사람이 죽고 부모형제가 생이별을 하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수 있었으면 좋겠다

\* 생이별 : 살아있지만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찾을수도 없는 이별을 생이별이라고 해.

I think that the aftermath of a war not only affects the soldiers life but also the life of the people around the soldiers. Wars ruin countries, the people, the economy and etc. I hope that wars will never happen again.

13.제가 여기 없는 문제를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월남전에서 돌아오고 가족이나 생활속에 전쟁이 영향이 있었나요?

Can I ask you a question that isn't on the list? (I sent my grandfather the translated version of the questions) After you came back from the Vietnam War do you think your lifestyle changed or has it been affected?

-> 조금 도움이 되었지.전투수당을 주거든 그것을 할머니에게 보내주었지.아들하고 딸들하고 잘 살라고.. 생활에 도움이 좀 되었지.

( 할아버지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 못하셨네. 지나가 알아서 만들어야 겠다

\*전투수당 : 군인을 원래 salary말고 월남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매월 돈을 주었는데 그것을 참전수당이라고 해

I think that I wasn't the person I was before the war. I became more dependent on your grandmother constantly needing her aid. I became someone who could not sleep alone.

14. How do you feel now that you look back at the war?

Im just glad your parents ended up not having a son

-> 그대로야..

(이것도 질문을 정확히 안했고 할아버지도 이해를 못하셨네 .그래서 질문 o r 잘해야되는거야